

국어 (홀수형)

1. 정답 : ②

해설 :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특징을 <총석정>, <삼일포>, <낙산사> 그림을 화면으로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. 따라서 ② ‘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.’가 적절하다.

2. 정답 : ④

해설 : 셋째 단락을 보면, <삼일포>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다고 하였다. 따라서 ‘<삼일포>에서는 수직준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드러냄’이라고 한 ㉔는 적절하지 않다.

3. 정답 : ④

해설 : ‘반대 1’은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음을 근거로 기존 방식(심사 방식)을 주장하고 있다. 따라서 ④ ‘반대 1’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.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4. 정답 : ④

해설 : [B]에서 ‘찬성 1’은 ‘반대 1’의 입론 내용인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, 작년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

5. 정답 : ⑤

해설 : 반대 측은, 기존 방식은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고, 덜 준비된 동아리가 선정되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. 따라서 ‘⑤ 반대 측은 ㉑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㉑이 ㉒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군.’은 적절하지 않다.

6. 정답 : ④

해설 : [A]의 첫째 문장은 ㉑, 둘째 문장은 ㉒, 셋째 문장은 ㉔, 넷째 문장은 ㉓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. 따라서 ㉑-㉒-㉔-㉓ 순서대로 반영되었다.

7. 정답 : ②

해설 : ‘△△샘물’이라는 제품명을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, 독자들에게 기사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이다. 따라서 ‘공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다’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8. 정답 : ⑤

해설 : ㉑에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과 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. 따라서 ‘⑤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매체 이용자들에게 착각을 유도한다.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.’고 한 것이 적절하다.

9. 정답 : ⑤

해설 : 바짝 마른 잔디가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느낀다고 한 것은 바짝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여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.

10. 정답 : ③

해설 : 문맥상 앞 뒤 내용이 역접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‘푸르지만’보다는 ‘푸르고’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.

11. 정답 : ①

해설 : ㉠의 경우 ‘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’의 ‘낮은’은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. 그리고 ㉡의 경우 ‘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’의 ‘낮다’는 중심의미가 추상화되어 ‘관심도가 많지 않다’라는 주변적 의미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12. 정답 : ⑤

해설 : ‘읻고’는 1차적으로 자음군 단순화(탈락)의 적용을 받아 ‘읻고’가 된 후, 음절의 끝소리 규칙(교체)의 적용을 받아 ‘ㄷ’이 대표음 ‘ㅂ’으로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. 그러므로 (가)와 (나)의 적용을 모두 받는 것은 5번이다.

13. 정답 : ③

해설 : 중세 국어의 ‘열다’, ‘흘다’는 ‘학습활동’의 예문에서 보여지는 대로,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와 주어만 있으면 되는 자동사로 그 형태가 고정되어 두루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. 반면에 현대국에서 ‘열다’와 ‘흘다’는 타동사의 경우에는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쓰이지만, 자동사로 쓰일 때는 피동 접미사가 붙어 ‘열리어’와 ‘흘어진’으로 바뀐다.

14. 정답 : ③

해설 : ‘놀이’의 경우 어근 ‘놀-’에 접미사 ‘-이’가 붙은 파생어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명사로 품사가 전환되었으므로, 동사가 지니는 서술성을 상실했다. 그래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.

15. 정답 : ④

해설 : ‘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’에서 ‘숨겼다’는 어근 ‘숨다’에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접사 ‘기’가 결합한 사동사로 볼 수 있고, ‘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졌다’의 경우 어근 ‘감다’에서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접사 ‘기’가 결합해서 피동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16. 정답 : ②

해설 :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을 종합하면 ‘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’는 ㉠과 ㉡ 모두로부터 ‘아니요’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. 논리실증주의의 경우는 경험을 통해 반드시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, 콰인의 경우에도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통해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은 전제하고 있다.

17. 정답 : ④

해설 :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, 콰인은 분석 명제가 동의적 표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,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개념과 소통된다고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18. 정답 : ⑤

해설 :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연결해서 의미를 정리해보면, ‘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’은 ‘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’이 거짓이라 하더라도, ‘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지식’이라는 조건에 비추었을 때 수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.

19. 정답 : ⑤

해설 :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간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하지만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 중 수정할 부분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체주의의 주장이 비판받고 있다.

20. 정답 : ②

해설 : ‘㉠ 도달한다’의 문맥적 의미는 ‘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’는 의미이므로 ②번의 ‘다다르다’와 바꿔 쓸 수 있다.

21. 정답 : ④

해설 : 윤씨는 총에 맞아 죽었으며 지영은 가해자가 아니다. 그리고 두 인물은 대립하지 않는다.

22. 정답 : ④

해설 : (나)에서 박씨의 용서와 ‘임장군전’에서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은 조선 백성의 희생에 대한 추모의 식과는 관계가 없다.

23. 정답 : ⑤

해설 : 용골대가 탄식하는 장면에서는 탄식하고 회군하면서 인질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드러나지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.

24. 정답 : ③

해설 : ‘끓주린 이리떼’는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린 모습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, 가난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다.

25. 정답 : ③

해설 : (다)에서 지영은 윤씨의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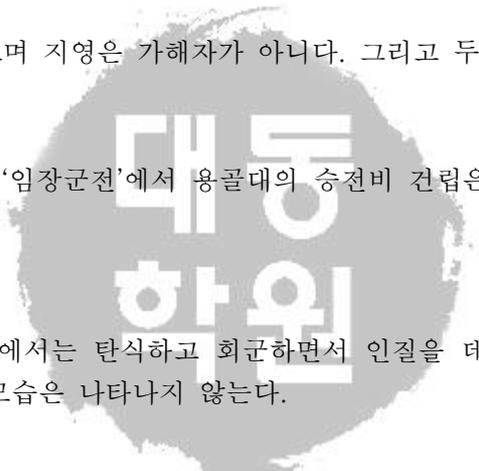
26. 정답 : ⑤

해설 : (다)에서 윤씨와 김씨 댁 아주머니의 행동을 통하여 곡식을 얻기 위해 강변으로 나가 곡식을 담은 과정에서 총성이 울리는 장면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.

27. 정답 : ②

해설 : 화자는 ‘나의 친구’가 방문한 뒤에야 자신의 삶이 그릇 되었다고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, 1연에서 ‘나라는 ~ 들여다본다’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.

28. 정답 : ②



해설 : ‘나는 이미 정해진~ 결심하고’에 드러나는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현실의 생활 문제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 태도, 즉 개선해야 하는 문제적 태도로 봐야 하므로,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2번 선택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29. 정답 : ①

해설 : ‘방 두칸, 마루 한칸, 말쑥한 부척, 애처로운 처’는 화자로 하여금 가난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유발시키는 시적대상으로 볼 수 있고, 제시방법은 열거, 나열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.

30. 정답 : ②

해설 : ‘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, 무대 안으로 나온다’는 부분은 현재에서 과거회상으로 전환되는 표현으로서 등장인물의 의상교체가 장면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

31. 정답 : ④

해설 : (나)의 ‘돌부처’를 만들며 가는 ‘길’은 결국 서연과 함이정이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이상적 세계인 ‘하늘’로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, ‘길’과 ‘하늘’이 대비된다고 볼 수 없고, 더구나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라 보기에 옳지 않다.

32. 정답 : ③

해설 : 조승인의 대사 중 ‘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’는 할아버지 함묘진의 행동을 평하는 것은 맞지만, 그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.

33. 정답 : ①

해설 : 2문단을 보면 피브로박터 속시노젠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를 늘린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.

34. 정답 : ④

해설 : 스트렙토코쿠스는 반추위의 산성도가 대사산물 배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지만,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는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성장에 관여하고 있기에 반추위 산성도와 연관이 없다.

35. 정답 : ①

해설 :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종합해 보면,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와 비섬유소는 결국 반추위에서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, 이를 이용하여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은 다시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.

36. 정답 : ③

해설 : 세 번째 단락에서 젖산은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.0 이하로 떨어지자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 대사산물로 배출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,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는 3번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.

37. 정답 : ③

해설 : 공정한 보험에 대한 개념과 상법에서 규정한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.

38. 정답 : ④

해설 : 다섯째 문단에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가입자에게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

있다.

39. 정답 : ⑤

해설 : 둘째 문단에서 공정한 보험은 보험 효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했다. 그리고 제시된 <보기>에서 A와 B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했으므로, A의 사고발생 확률(0.1)과 보험효율(보험료/보험금, 1/10)이 같아야 한다.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$0.2=1/5$ 가 되어야 한다. 여기서 보험금이 A는 10, B는 5로 추정해낼 수 있다. 따라서 기댓값(사고확률×보험금)을 계산해 보면 A는 $(0.1 \times 10=1)$, B는 $(0.2 \times 5=1)$ 로 같다. 선택지 ⑤에서 보험료가 같다면 기댓값이 같다는 설명과 부합한다.

40. 정답 : ①

해설 : 상법의 규정에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해지권이나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.

41. 정답 : ④

해설 : 다섯째 문단에서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사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. 즉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.

42. 정답 : ①

해설 : 대비(對備),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함. 대비(對比)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서로 맞대어 비교함.

43. 정답 : ③

해설 : 연행가는 기행가사의 일종이다. 중략 부분을 기준으로 앞은 낯선 풍물과 그에 대한 정서를, 뒤는 회환할 때의 상황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.

44. 정답 : ⑤

해설 : 시일이 흐름에 따라 파종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으니 시간의 경과를 표현했다.

45. 정답 : ①

해설 :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마음이 통했다는 ‘정곡을 상통한다’ 했으니 오히려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다.

